

Global Report

건설산업을 변화시키는 8개의 스타트업

1. 개요
2. 필드와이어(FieldWire)
3. 라이브코스츠(LiveCosts)
4. 이큅먼트셰어(EquipmentShare)
5. 사이트패스포트(Site Passport)
6. 머신아이(Machine Eye)
7. 빌트로보틱스(Built Robotics)
8. 스마트빔(SmartBeam)
9. 콘엑스(ConX)

1. 개요

향후 10 년 동안 유의미한 디지털 전환을 거치지 않을 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야심 찬 자율 로봇 제작자에서 건설 현장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적인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Software-as-a-Service)에 이르기까지 향후 몇 년 동안 건설산업을 변화시킬 기술 솔루션과 혁신을 살펴본다.

2. 필드와이어(Fieldwire)

필드와이어(Fieldwire)社は 건설 노동자를 위한 현장관리 솔루션을 개발 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3년에 설립 된 이래 Menlo Ventures, Brick & Mortar Ventures 및 Formation8으로부터 4천 4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이 회사는 사무실과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건설공사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 작업자는 품질, 안전 및 스케줄링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장치에서 작업을 추적하고 조정할 수 있다. CEO인 Yves Frinault는 현장에서 실제로 채택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기업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고객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두 가지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라이브코스트(LiveCosts)

LiveCosts社(구 PaidAde)는 건설 소프트웨어 시장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아일랜드 출신의 창업자인 Kenneth Lambe와 Ciaran 및 Niall Brennan은 2018년 NDRC(아일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 지원기관)의 투자자 쇼케이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3만 유로의 후속 투자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건설사가 인보이스부터 직원 업무시간까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적 할 수 있는 자동화된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플랫폼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사무실과 현장을 연결하여 소요예산 확인과 업무단계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대시 보드를 제공한다. 또한 공급업체와 가격 카탈로그 통한 공급업체 간의 가격 비교를 제공하며 현장 근무자를 위한 시간확인, 자료요청, 배송기록, 프로젝트 비용 할당 등의 기능을 갖춘 앱을 개발하였다.

4. 이큅먼트셰어(EquipmentShare)

EquipmentShare社は 건설장비 대여서비스로서 '건설업의 에어비앤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미주리주에 본사를 둔 이 스타트업은 고객들이 활용 빈도가 낮거나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필요 장비를 다른 업체들로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회사는 건설장비의 소유자가 고소 리프트, 자재 처리 및 토양 이동 차량에서부터 농업 장비와 소형 전동 공구 등의 장비들을 모니터링 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적기술도 제공한다. Crunchbase(스타트업 투자정보 제공업체)에 따르면 Brad Siegler, Jabbok Schlacks, Jeff Lowe, Matthew McDonald 및 Willy Schlacks가 2014 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Y Combinator, Insight Partners, Romulus Capital, Trifecta Capital 및 Sound Ventures로부터 587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5. 사이트패스포트(Site Passport)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Site Passport社は 건설산업을 위한 조달 및 규정준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이다.

Rob Fox가 2017 년에 설립 한 이 회사는 기업 경쟁력과 평판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스마트하고 통합 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건설 기업이 공급에 참여하고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일랜드 Dún Laoghaire에 사무실을 둔 이 회사는 현재 기술과 건설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가진 7명의 팀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9년에 Enterprise Ireland로부터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세계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6. 머신아이(Machine Eye)

북아일랜드 Newry에 위치한 Machine Eye社は 트랙터, 플랜트 및 중장비에 사용되는 스마트 장치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으로,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장비관련 사고를 방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업의 기술은 AI를 활용하여 사고가 임박하다고 예측되면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를 격리하거나 정지하도록 장비를 제어한다. 회사는 Farm Safety Partnership Innovation Award, Invent 2018 전자 부문 최고상, Ireland Funds Business Plan Innovation Award 등 다수의 수상실적이 있다.

7. 빌트로보틱스(Built Robotics)

Built Robotics社は 기성 중장비를 AI 유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건설로봇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실리콘밸리의 건설 스타트업 회사이다. 이 기업은 자율 도저와 굴삭기에 다층 안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무선 비상정지 버튼과 사람, 동물 및 기타 차량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기술이 있으며 7,500 시간 이상의 안전 운행 실적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사는 2016 년 Andrew Liang과 Noah Ready-Campbell이 설립 한 이후 Founders Fund, Next47, Great Oaks Capital 및 기타 여러 VC 펀드를 통해 4,800 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8. 스마트빔(SmartBeam)

벨기에에 본사를 둔 SmartBeam社は 엔지니어, 계약자, 건축가 및 고객을 위해 입찰부터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건설현장의 예산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이메일 및 Excel을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한다. 2017년 Caroline Basecqz, Florent Coninck 및 Vincent Canuel이 설립한 이 회사는 생산성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BNP Paribas 및 Belgian Confédération Construction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Crunchbase에 따르면 이 회사는 Digital Attraxion 및 Be Angels를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약 100만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9. 콘엑스(ConX)

2015 년 건설업 노동자를 위한 구인 게시판으로 출범 한 ConX는 몇 년 후 일자리 입찰 및 견적시스템을 출시했고,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일자리가 플랫폼을 통해 연계되는 것을 확인했다. ConX는 수영장 건설업자에서 토목공사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인력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호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CEO Annie Slattery, CTO Johnathan Clarke, 비즈니스 관리 개발자 Jonathan Slattery 및 커뮤니티 책임자 Keith Moore가 이끌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12,000명의 업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는 2020년에 미국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원문제목> 8 start-ups transform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문출처> Silicon Republic(Jan 2020), Irish technology news